

1-12 성결과 근면한 생활에 대한 교훈

4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실제적 교훈의 부분

- 계속적 신앙 성장을 위한 도덕적, 신앙적 권면

실제로 당시 여러 교회들에서 이방 숭배와 관련한 종교적 타락 현상과 더불어

도덕적, 성적 타락 현상이 범람

성도라고는 하나 과거 그들이 침잠했던 구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이어감

바울은 4장에서 성결한 생활과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 그리고 근면한 생활에 대한 권면을 통해 모범적인 성도의 생활을 교훈하고 있다.

1. 성도는 마땅히 우리를 거룩케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7,8절) 스스로 자제함으로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여야 한다. 이것이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다.
2.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과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다(9절)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3.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자는 이 땅의 일에도 충실해야 하며 게으르지 말고 근면해야 한다. (11절) 즉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고귀한 것으로 성도들도 마땅히 노동을 함으로 근면한 생활을 통해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13-18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교훈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대에 일어날 이미 죽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

종말에 대한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관심사였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때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영광에 참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때 성도의 부활이 있으며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 할 것이므로 죽은 성도를 위해 근심할 필요가 없음을 교훈

-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함을 교훈 -